

중년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여가시간사용 결정요인 분석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eisure time use
by marital status of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부 교수 서 지원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 사 양 진 운

Dep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eo, Jiwon

Dept. of Social Welfare, Halla University

Lecturer Yang, Jinwo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related to leisure time to understand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Data are from the recent survey of lifetime use in 2014 by Statistics Korea(N=1,138).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aged 40-59 years we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by marital status (unmarried/married/widowed/divorced). Major results were found as follows: First, the total leisure time per day was 238 min in the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The majority of the total leisure time was spent on 'fellowship & leisure activities'(204 min on weekdays, 283 min on weekends). Especially, time spent on real-time TV watching hours was the longest, as long as 89 min on weekday and 150 min on weekends. Second, gender differences were significant in terms of leisure time use in the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Females spent less time on leisure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on both weekdays and weekends. In addition, gender differences related to marital status were significant. Third, on weekdays,

* 주저자, 교신저자: 서지원(jiwonseo@knou.ac.kr)

the determinants of leisure time use among the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were health and type of employment for ‘participation & volunteer activities’, and gender, age, marital status, and type of employment variables for ‘fellowship & leisure activities.’ On weekends, time spent on ‘participation & volunteer activities’ were influenced by marital status, residential area, and type of employment, while time spent on ‘fellowship & leisure activiti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gender, type of employment, type of job, holiday system, and income.

Key Words : 중년1인가구(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시간사용(time use), 여가시간(leisure time), 참여 및 봉사(participation & voluntary activities), 교제 및 여가(fellowship & leisure activities), 성차(gender differences)

I. 서론

최근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한국사회의 가족구성 및 가족형태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한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편적인 가구유형으로 여겨졌던 4인가구는 2000년 31.1%에서 2010년 22%로, 2015년 18.8%로 크게 감소한 반면(통계청, 각년도), 2015년 현재 1인가구는 약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7.2%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구원수별 유형분류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6).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저출산 현상이나 고령화의 추세와 더불어 이미 서구에서 나타난 인구구조의 변화이며, 이미 1980년대 이후부터 1인가구의 성장과 그 대응을 위한 연구(Hall & Hill, 1997; Kaufman, 1994; Wall, 1989; White & Lahmann, 1988)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1인가구의 증가를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 개인주의화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관련한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라고 해석하였다. 세계적으로 1인가구의 특성을 보면 소득분포상으로는 빈곤층이, 연령대별로는 노년층이 주된 증가를 주도하는 집단으로 나타난 한편(김도희, 2012; 유병규·조호정·전선형,

201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학력,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만혼과 비혼, 도시화,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한국사회에 작용하는 경쟁심리와 과잉과시의 사회적 압력 등으로 인한 청년 1인가구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Lee & Han, 2013; 반정호, 2012; 김혜영 외, 2007; 변미리, 2008; 손승영, 2005).

최근 우리사회의 1인가구는 가족생활은 물론 경제 및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1인가구의 세대별 분포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문제에 이어 청년세대의 1인가구에 대한 복지가 중요하게 논의되어온 반면, 여전히 중년1인가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1인가구수는 2005년 약 317만 가구에서 2015년 약 520만 가구로 64%가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연령대가 50대인 1인가구는 약 36만 가구에서 약 87만 가구로 13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40대 1인가구 역시 47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7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2015). 이에 비해 같은 기간 20대는 31%, 30대 52%, 60대 55%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점에서, 1인가구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나 노년기의 1인가구 연구뿐 아니라 중년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의 중년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한 혼인 지연과 중년층의 이혼, 기러기가족 등으로 인한 분거의 증가, 사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혜영, 2008; 나지나 외 2010; 반정호, 2012; 여윤경, 2003; 이희연·노승철·최은영, 2011). 이들 중년세대에 속하면서 1인가구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하는 여러 연구결과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다른 가구에 비해 여가나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 지출수준이 낮고, 여가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역시 보통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월·조향숙, 2015; 강은택·강정구·마강래, 2016). 또한 중년의 1인가구주는 동년배인 다인가구주에 비해 자살을 4배나 더 많이 생각하였고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도 3배가량 많았다는 연구결과(강은나·이민홍, 2016) 역시 낮은 삶의 질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중년의 나이에 홀로 살아가는 1인가구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심층연구를 통해 규명할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1인가구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중년1인가구의 생활을 규명하는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년세대의 생활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삶의 양식을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성별 및 혼인상태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중년1인가구의 여가시간 사용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가족정책을 비롯한 사회정책에서 이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년1인가구의 특성

중년1인가구의 여가생활시간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1인가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인가구는 여러 연구(여윤경·양세정, 2001; 조성철, 2012; 차경욱, 2006)에서 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에 비춰 볼 때 1인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1인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통계청, 2005).

다음으로 생애주기 상의 ‘중년’에 대한 연령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몇몇 연구(김기향, 2013; 박윤희, 2010)에서는 중년기를 고령기로 향해 가는 중간시기로 정의하고 있고, 강은나와 이민홍(2016)은 1인가구를 세대별로 분류하면서 청년기 20~39세, 중년기 40~64세, 노년기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한 바 있다. 한편, 은퇴기를 고려한 가계소비지출 양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최홍철·최현자, 2014)에서는 장년기를 39세 이하, 중년기를 40~59세, 은퇴기를 60세 이상의 연령집단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때, 중년기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혼인상태(marital status)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Ben-Zur, 2012). 강은택 외(2016)의 연구에서는 1인가구를 미혼집단과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기혼집단으로 나누고, 고용, 주거, 소득 등의 주요 변수들이 이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1인가구 내에서도 혼인상태에 따라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였는데,

미혼 1인가구의 경우 경제적 독립을 위한 요인(고용, 소득)과 주거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난 반면, 기혼 1인가구는 자녀와의 교류나 주관적 소득 안정 등의 심리적 요인과 주거안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 연구(김혜영, 2008; 이희연 외, 2011)들 역시 중년1인가구의 증가 현상은 미혼뿐만 아니라 별거 및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중년1인가구의 연령을 40~59세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이들의 혼인상태를 미혼 또는 비혼의 상태로 제한하지 않고 분석하고자 한다. 즉, 중년1인가구의 혼인상태에는 미혼을 비롯하여 이혼이나 사별, 배우자가 있어도 동거하지 않는 별거 또는 분거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하고자 한다. 다만, 시간사용구조상 근로시간이 여가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업상태에 있는 중년1인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중년1인가구의 여가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강은나·이민홍, 2016; 강은택 외, 2016; 김혜영, 2014; 김혜정, 2015; 성영애, 2013; 우민희·이명진·최셋별, 2015; 이진숙·이윤석, 2014; 홍성철, 2015)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중년1인가구의 여가활동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1인가구의 여가에 관한 연구로는 박지혜, 이순학과 한승희(2015)의 연구와 전상민(2013), 최경은과 윤주(2013), 윤소영(2002), 이성림과 김기욱(2009), 최셋별(2014)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지난 2013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1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문화소비패턴을 분석한 연

구(박지혜 외, 2015)를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40~50대 1인가구는 ‘운동및오락서비스’ 부분의 지출이 많았으며 성별로도 남성 1인가구의 지출비중은 20.2% 수준으로 여성 1인가구에 비해 12.8%p 더 높았다. 제7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의 유형을 파악한 전상민(2013)의 연구는 중년1인가구를 ‘월세및교통비지출형’과 ‘치장·외식및오락비지출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기타소비지출에서 경조사비와 종교비용과 별도로 이미용용품·장신구·교제비를 산출함으로써 중년기 소비형태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성림과 김기욱(2009)의 연구에서도 1인가구의 여가활동 소비지출패턴 구성요인을 파악하여 여가활동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중년기 여가활동은 단체여행, 운동, 강습, 독서, 공연관람, 오락시설이용 등에 집중되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중년1인가구의 여가에 성별과 연령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소비지출에 초점을 맞춘 여가라는 점에서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여가활동시간의 특성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한편, 윤소영(2002)의 연구에서는 30대와 40대 독신집단과 기혼집단의 시간사용과 여가시간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독신은 기혼에 비해 ‘일’에 투자하는 시간은 더 많은 반면, ‘교제및여가활동’ 시간은 더 적었다. 이때, 독신집단의 교제및여가활동에서 TV, 신문·잡지, 라디오 등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사회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2013) 자료를 사용하여 1인가구의 문화활동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최셋별(2014)의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문화활동 참여도가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 내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문화활동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은과 윤주(2013)의 연구 역시 1인가구의 여가활동은 TV시청 등과 같은 소극적 여가의 비중이 높고,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이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년1인가구의 여가시간 사용의 특성을 드러낸 선행연구를 통해 1인가구의 성별이나 연령대, 소득 등의 요인에 따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음에도, 청년세대에 비해 혼인상태의 변화 등 삶의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중년1인가구들이 홀로 세대를 구성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1인가구로서의 동질성을 넘어 어떠한 이질성을 가지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의 사용을 통해 중년1인가구의 삶에 접근하고자 하며 이들의 시간사용이 성별과 혼인상태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중년1인가구의 여가시간의 하위영역별 시간사용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중년1인가구의 혼인상태에 따른 여가시간 하위영역별 사용시간의 성차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중년1인가구의 여가시간의 하위영역별 사용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간연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최신 자료인 ‘2014 생활시간조사자료(2015)’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40-59세의 취업 1인가구로 선정하였으며, 여가시간 사용량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N=1,138).

우선 시간일지자료를 통해 측정된 주요 생활시간 영역 중 여가시간에 해당하는 시간행동의 분류체계는 크게 ‘참여및봉사활동시간’과 ‘교제및여가활동시간’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분류에 따라 여가활동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때, 전자에는 ‘참여활동’, ‘자원봉사’, ‘친분있는사람 돕기’의 3개 하위활동영역이 속하며, ‘교제및여가활동’에는 ‘교제활동’, ‘미디어이용여가활동’, ‘종교활동’, ‘문화활동시간’, ‘스포츠및레포츠시간’, ‘의례활동시간’, ‘기타여가’의 7개 활동영역이 속한다. 다음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질문지의 문항을 통해 파악되는 변수 가운데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거주지역)와 직업관련 변수(취업형태, 직업유형, 정기휴무제, 개인소득)를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중위값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각 집단별 시간빈곤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총 여가시간 및 각 영역별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4.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명	조작적 정의
여가시간 관련 변수	
총 여가시간	‘참여및봉사활동’과 ‘교제및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분/일)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	‘참여활동시간’, ‘자원봉사시간’, ‘친분있는사람돕기시간’의 합계(분/일)
참여활동시간	‘의무적참여활동’, ‘자녀교육관련참여’, ‘기타참여활동’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분/일)
자원봉사시간	‘국가·지역행사자원봉사’, ‘소외계층및재해주민관련자원봉사’, ‘기타자원봉사’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분/일)
친분 있는 사람 돕기 시간	‘친분있는사람돕기’, ‘소득있는돕기’, ‘가사활동돕기’, ‘기타돕기’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분/일)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교제활동시간’, ‘미디어이용여가활동시간’, ‘종교활동시간’, ‘문화및관광활동시간’, ‘스포츠및레포츠시간’, ‘의례활동시간’, ‘기타여가’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분/일)
교제활동시간	‘대면교제’, ‘화상·음성교제’, ‘문자·메일교제’, ‘기타교제’ 관련 행동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분/일)
미디어이용여가활동시간	‘책읽기’, ‘신문보기’, ‘잡지보기’, ‘실시간방송보기(TV)’, ‘비디오보기’, ‘라디오듣기’, ‘오디오듣기’, ‘인터넷정보검색’, ‘기타미디어활동’ 관련 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분/일)
종교활동시간	‘개인적종교활동’, ‘종교집회·모임참가’, ‘기타종교활동’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분/일)
문화및관광활동시간	‘영화관·비디오방’, ‘연극·콘서트’, ‘미술작품·박물관관람’, ‘스포츠경기관람’, ‘관광· 드라이브’, ‘기타문화·관광활동’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분/일)
스포츠및레포츠시간	‘걷기·산책’, ‘달리기·조깅’, ‘등산’, ‘자전거·인라인’, ‘개인운동’, ‘구기운동’, ‘낚시·사냥’, ‘기타스포츠·레포츠’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분/일)
의례활동시간	‘관혼상제’ 등 의례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분/일)
기타 여가활동시간	‘집단게임·놀이’, ‘컴퓨터·모바일게임’, ‘개인취미활동’, ‘여가·교양학습’, ‘유흥’, ‘담배피우기’, ‘아무것도안하고쉬’, ‘기타여가’ 관련 행동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분/일)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별	성별(1=여성, 0=남성)
연령	만 나이(세)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으로 구분한 혼인상태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으로 구분한 교육수준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한 질문 문항(5점 척도)에 대한 응답(1=아주 건강하지 않다, 2=조금 건강하지 않다, 3=보통이다, 4=건강하다, 5=아주 건강하다)
수도권거주	서울 및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1=수도권, 0=비수도권)
직장 변수	
취업형태	‘시간제임금근로’, ‘전일제임금근로’, ‘자영업’으로 구분한 종사상 지위
직업유형	‘관리전문직’, ‘사무서비스직’, ‘기술직’, ‘단순노무직’으로 구분한 직업유형
정기휴무제	‘2주1일휴무’, ‘주1일휴무’, ‘주1일+격주토요일휴무’, ‘주5일제(주2일휴무),’ ‘기타휴무’로 구분한 정기휴무제
소득수준	‘150만원미만’, ‘150~300만원’, ‘300만원이상’으로 구분한 월평균 개인소득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중년1인가구로 선정된 연구대상은 총 1,138명이었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 57.1%, 여성 42.9%로 남성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시간조사일은 평일 60.4%, 주말 39.6%로 주말에 비해 평일 시간자료가 약간 더 많이 선정되었다. 거주지역은 수도권 28.8%, 비수도권 71.2%였고, 교육수준은 고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45.2%, 전문대졸 이상이 31.2%, 중졸이하 23.6% 순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150~300만원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 42.4%, 0~150만원미만인 경우와 300만원이상인 경우가 각각 34.4%와 23.2%로 나타났다. 취업형태는 전일제 임금근로인 경우가 62.4%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27.4%, 시간제 임금근로 10.2% 순이었고, 직업유형은 사무서비스직 36.4%, 기술직 27.2%, 단순노무직 22.3%, 관리전문직 14.1% 순

으로 조사되었다. 혼인상태는 이혼인 경우가 가장 많은 31.8%, 미혼 27.6%, 유배우 25.8%, 사별 14.8%로 나타났다. 중년1인가구의 평균연령은 50.2세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한 건강상태는 3.36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였다.

2. 중년1인가구의 여가시간 하위영역별 시간 사용

중년1인가구의 여가시간 사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여가시간의 활동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중년1인가구는 하루 평균 238분을 여가시간으로 사용하였다. 이 중 대부분을 교제및여가활동 영역에 약 235분(98.9%)을 배분하였으며, 참여및봉사활동에는 단지 약 3분(1.0%)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참여및봉사시간의 사용구조를 보면, 하위영역별 시간사용량도 매우 짧았으며 친분 있는 사람돕기 > 자원봉사 > 참여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친분있는사람돕기’ 활동 중 가사활동 돕기 시간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138)

변수		빈도	%	변수		빈도	%
성별	남성	650	57.1	조사일	평일	687	60.4
	여성	488	42.9		주말	451	39.6
거주 지역	수도권	328	28.8	월소득	0 ~ 150만원미만	392	34.4
	비수도권	810	71.2		150 ~ 300만원미만	482	42.4
					300만원이상	264	23.2
교육 수준	중졸이하	268	23.6	취업 형태	시간제임금근로	116	10.2
	고졸	514	45.2		전일제임금근로	710	62.4
	전문대졸이상	356	31.2		자영업	312	27.4
혼인 상태	미혼	314	27.6	직업 유형	관리전문직	160	14.1
	유배우	294	25.8		사무서비스직	414	36.4
	사별	168	14.8		기술직	310	27.2
	이혼	362	31.8		단순노무직	254	22.3
변수		평균	SD	변수		평균	SD
연령		50.2	5.54	건강수준(5점척도)		3.36	.78

〈표 3〉 평일 및 주말 중년1인가구의 활동영역별 여가시간 사용시간 및 비중

(단위: 분/일)

	평균		평일		주말	
	시간량	%	시간량	%	시간량	%
총 여가시간	238.0	100	206.4	100	286.1	100
참여 및 봉사시간	2.6	1.0	2.1	1.0	3.4	1.2
참여활동	0.2	.1	0.1	0.1	0.2	.1
의무적 참여활동	0.0	.0	0.0	.0	0.0	.0
자녀교육 관련	0.0	.0	0.0	.0	0.0	.0
기타 참여활동	0.0	.0	0.0	.0	0.0	.0
자원봉사	0.4	.2	0.7	.3	0.1	.0
국가·지역 행사 관련	0.0	.0	0.0	.0	0.0	0
소외계층 관련	0.4	.0	0.7	.3	0.1	.0
재해주민 관련	0.0	.0	0.1	0.1	0.0	.0
기타 자원봉사	0.0	.0	0.0	.0	0.0	.0
친분 있는 사람 돕기	2.0	.8	1.3	.6	3.1	1.1
친분 있는 사람 돕기	0.0	.0	0.0	.0	0.1	.0
소득 있는 활동 돕기	0.3	.1	0.3	.2	2.0	.7
가사활동 돕기	0.8	.3	0.8	.4	0.9	.3
기타 돕기	0.3	.1	0.3	.2	0.1	.0
교제 및 여가시간	235.4	98.9	204.3	98.9	282.7	98.8
교제활동	39.6	16.6	34.8	16.9	46.9	16.4
대면교제	26.3	11.1	22.2	10.8	32.5	11.4
화상·음성교제	10.5	4.4	10.2	4.9	10.8	3.8
문자·메일교제	2.8	1.2	2.3	1.1	3.5	1.2
기타 교제관련 활동	0.0	.0	0.0	.0	0.0	.0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124.5	52.3	107.7	52.2	150.0	52.4
책 읽기	5.9	2.5	5.9	2.9	5.9	2.1
신문 보기	1.6	.7	1.9	.9	1.1	.4
잡지 보기	0.0	.0	0.0	.0	0.0	.0
실시간 방송 보기(TV)	105.3	44.2	88.5	42.88	131.0	45.8
비디오 보기	0.8	.3	0.2	.1	1.6	.6
라디오 듣기	1.2	.5	1.6	.8	0.7	.2
오디오 듣기	0.8	.4	0.7	.3	0.9	.3
인터넷 정보검색	8.7	3.7	8.8	4.3	8.6	3.0
기타 미디어 관련 활동	0.2	.08	0.2	.1	0.2	.1
종교활동	7.8	3.3	5.1	2.5	11.9	4.2
개인적 종교 활동	3.7	1.6	4.1	2.0	3.0	1.1
종교 집회·모임 참가	3.7	1.6	1.0	.5	7.8	2.7
기타 종교 관련 행동	0.5	.2	0.0	0	1.2	.4

(표 3) 계속

	평균		평일		주말	
	시간량	%	시간량	%	시간량	%
문화 및 관광 활동	2.7	1.1	0.8	.4	5.7	2.0
영화관·비디오방	1.4	.6	0.7	.3	2.5	.9
연극, 콘서트	0.0	.0	0.0	.0	0.0	.0
미술작품·박물관 관람	0.1	.0	0.0	.0	0.2	.1
스포츠 경기 관람	0.0	.0	0.0	.0	0.0	.0
관광·드라이브	0.4	.1	0.0	.0	1.0	.4
기타 문화·관광 활동	0.9	.4	0.2	.1	2.0	.7
스포츠 및 레포츠	28.9	12.1	23.6	11.4	36.9	12.9
걷기·산책	10.0	4.2	8.8	4.3	11.8	4.1
달리기·조깅	0.2	.1	0.3	.2	0.1	.0
등산	4.5	1.9	1.7	.8	8.8	3.1
자전거·인라인	0.3	.1	0.2	.1	0.4	.1
개인운동	7.7	3.2	8.7	4.2	6.3	2.2
구기운동	4.2	1.8	3.8	1.8	4.8	1.7
낚시·사냥	0.9	.4	0.1	.1	2.0	.7
기타 스포츠·레포츠	1.1	.5	0.0	.0	2.7	.9
의례활동	0.5	.2	0.1	.1	1.1	.4
환혼상제 등 의례	0.5	.2	0.1	.05	1.1	.4
기타여가	31.4	13.2	32.1	15.6	30.4	10.6
집단게임·놀이	1.9	.8	1.1	.5	3.1	1.1
컴퓨터·모바일 게임	5.3	2.2	5.5	2.7	4.8	1.7
개인 취미활동	0.6	.3	0.8	.4	0.4	.1
여가·교양 학습	0.6	.3	0.8	.4	0.1	.0
유흥	7.3	3.1	7.6	3.7	6.8	2.4
담배 피우기	3.7	1.6	4.3	2.1	2.9	1.0
아무것도 안하고 쉬	11.7	4.9	11.7	5.7	11.7	4.1
기타 여가 관련 행동	0.5	.2	0.6	.3	0.3	.1
N	1,138		687		451	

이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 교제및여가시간의 활동 영역별 시간량을 비교하면, 미디어이용여가(125분, 52.3%)>교제활동(40분, 16.6%)>기타여가(31분, 13.2%)>스포츠및레포츠(29분, 12.1%)>종교활동(8분, 3.3%)>문화및관광활동(3분, 1.1%)>의례활동(1분, 0.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제및여가시간

중 미디어이용여가에 절반 이상의 시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세부하위활동 중 ‘실시간 방송보기(TV)’가 약 105분으로 가장 길었다.

평일과 주말의 여가시간 배분을 비교하면, 총 여가시간은 각각 206분과 286분으로 나타나 평일 보다 주말에 약 1시간 20분 정도를 더 사용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참여및봉사활동시간으로는 평일 2분, 주말 3분 수준으로 모두 매우 짧았고 주말에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교제및여가활동시간은 평일과 주말 각각 204분(98.9%), 283분(98.8%)으로 평일에 비해 주말에는 1시간 18분을 더 사용하고 있었다.

교제및여가활동시간의 하위활동 영역별로 시간사용량을 비교하면, 평일은 앞서 제시한 전체평균의 순서와 동일하며, 주말에는 스포츠및레포츠 시간이 기타여가보다 길게 나타났다. 평일과 주말 활동영역별 시간배분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교제활동은 평일 35분, 47분으로 주말에 약 12분 증가하였는데, 주말 증가분은 대부분 대면교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시간은 평일 108분, 주말 150분으로 전체 활동에서 평일과 주말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때, 실시간방송보기(TV)는 평일 89분, 주말 131분이 각각 사용되었고, TV 시청을 제외한 다른 미디어 이용 여가시간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셋째, 종교활동은 평일 5분, 주말 12분으로 나타났으며, 평일에는 개인적 종교활동시간이, 주말에는 종교집회·모임참가시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넷째, 문화및관광활동은 평일과 주말 모두 짧은 시간을 사용하여 전체 여가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평일 1분에 비해 주말 6분으로 시간사용량에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스포츠및레포츠 활동시간은 평일 24분, 주말 37분으로 주말에 13분이 더 길었으며, 평일과 주말 모두 걷기·산책 시간의 사용비중이 가장 높았다. 걷기·산책, 등산, 자전거·인라인, 구기운동, 낚시·사냥, 기타스포츠및레포츠는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달리기·조깅과 개인운동은 평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여섯째, 의례활동에는 평일 1분 미만, 주말 1분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 사용되었다. 일곱째, 기타여가 활동은 평일 32분, 주말 30분으로 하위활동영역 중 유일하게 평일 사용시간이 주말에 비해 길었다. 기타여

가 활동 가운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 평일과 주말 모두 12분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유희, 컴퓨터·모바일게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중년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여가시간사용의 성차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중년1인가구의 혼인상태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여가시간 하위유형별 시간사용에서의 성차를 t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평일의 경우는 <표 4>, 주말의 경우는 <표 5>와 같다.

1) 평일 중년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여가시간사용의 성차

우선 평일의 여가시간사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년1인가구 집단의 경우 총 여가시간은 남성이 하루에 약 218분, 여성이 하루 약 190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28분을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총 여가시간을 구성하는 하위영역별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먼저 참여및봉사시간의 경우 남성 1.2분, 여성 3.3분으로 두 집단 모두 매우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세부 하위영역별 시간인 참여활동, 자원봉사, 친분있는사람돕기 시간 역시 모든 영역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평일의 교제및여가활동시간으로 남성은 하루 217분, 여성은 하루 187분을 사용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30분 더 긴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분석되었다. 교제및여가활동시간의 하위영역별 시간사용에서는 교제, 미디어이용여가, 종교활동, 기타여가의 네 가지 하위영역에서 남녀간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미디

어이용여가와 기타여가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더 긴 시간을 사용하였으나, 교제활동과 종교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길었다.

혼인상태별로 중년1인가구의 평일 여가시간 사용에서 나타난 성차를 분석한 결과, 혼인상태에 따른 남녀간 성차는 서로 다른 분포를 보였다. 우선 총 여가시간은 미혼 집단과 유배우 집단에서만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미혼 집단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58분 더 긴 236분을 사용하였으며, 유배우 집단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54분 더 긴 시간을 사용하였다. 사별 및 이혼집단에서는 총 여가시간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혼집단의 경우, 참여및봉사시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매우 적은 시간을 사용하여 성차도 유의하지 않은 반면, 교제및여가활동시간은 남성이 유의하게 길었으며, 하위영역별로 보면 미디어이용여가와 기타여가 활동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를 보였다. 유배우 1인가구의 경우, 미디어이용여가와 스포츠및레포츠, 기타여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다. 반면, 사별 1인가구와 이혼 1인가구의 경우 공통적으로 총 여가시간은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때 참여및봉사시간과 교제및여가활동시간에서 모두 유의한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교제및여가활동 하위시간영역에서 나타난 성차를 보면 사별집단의 경우에는 종교활동과 기타여가의 두 영역에서, 이혼 집단의 경우에는 교제, 종교활동, 기타여가의 세 영역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이때 사별집단과 이혼집단 모두 종교활동에는 여성이 유의하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여가에는 남성이 유의하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혼집단의 교제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말 중년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여가시간사용의 성차

중년1인가구의 주말 총 여가시간의 사용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하루 약 307분, 여성은 하루 약 259분으로 남성의 총 여가시간이 여성에 비해 48분 더 길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참여및봉사시간은 주말보다는 증가하였으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성 약 4분, 여성 약 2분 수준으로 교제및여가활동시간에 비해 매우 짧았다. 교제및여가활동은 남성이 약 303분, 여성이 약 257분을 사용하여 남성이 유의하게 긴 시간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교제, 미디어이용여가, 스포츠및레포츠, 기타여가의 네 활동영역에서 성차가 유의하였다. 이때, 교제시간은 여성이 유의하게 더 긴 시간을 사용한 반면, 나머지 세 영역에서는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평일과 비교하면, 교제, 미디어이용여가, 기타여가는 공통적으로 성차가 나타났으며 평일에는 종교활동에서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주말에는 스포츠및레포츠활동에서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혼인상태별 중년1인가구의 여가시간 사용의 성차 분석 결과를 보면, 총 여가시간은 미혼집단과 이혼집단에서만 유의한 성차를 보였다. 모든 집단에서 참여및봉사시간에서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교제및여가활동시간은 미혼집단과 이혼집단에서 유의한 성차를 보였다. 교제및여가활동시간의 하위 활동영역별 시간사용의 성차를 살펴보면, 미혼집단의 경우 미디어이용여가에서만, 유배우집단의 경우 기타여가에서만, 이혼집단의 경우 스포츠및레포츠와 기타여가의 두 영역에서 성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유의한 성차가 나타난 영역은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별 집단의 경우에는 모든 하위영역 시간사용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평일 종년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여가시간사용의 성차에 대한 t검증 결과

구분	성별	전체(n=687)		미혼(n=185)		유배우(n=188)		사별(n=103)		이혼(n=211)	
		평균(SD)	t	평균(SD)	t	평균(SD)	t	평균(SD)	t	평균(SD)	t
총 여가시간	남	218.3(135.3)	2.80 **	236.3(151.7)	3.06 **	220.2(125.5)	2.82 *	205.0(136.4)	-12	197.5(124.2)	.06
	여	190.4(119.9)		178.0(101.4)		166.2(101.4)		208.6(135.7)		196.6(124.4)	
참여 및 봉사시간	남	1.2(12.5)	-1.35	.0(0)	-1.00	1.28(10.5)	.89	.0(0)	-92	3.0(21.0)	-.33
	여	3.3(23.8)		1.4(10.6)		.0(0)		6.0(33.1)		4.1(26.8)	
참여활동	남	.3(5.0)	.87	.0(0)	-	.0(0)	.89	.0(0)	-	.9(9.7)	1.00
	여	.0(0)		.0(0)		.0(0)		.0(0)		.0(0)	
자원봉사	남	.1(1.5)	-1.52	.0(0)	-	.0(0)	-	.0(0)	-.58	.3(29)	-.86
	여	1.5(15.6)		1.4(10.6)		.0(0)		1.7(14.8)		2.1(21.5)	
친분있는사람돕기	남	.9(11.4)	-.82	.0(0)	1.00	1.3(10.5)	-	.0(0)	-.73	1.8(18.5)	-.09
	여	1.8(18.1)		.0(0)		.0(0)		4.3(29.8)		2.0(16.3)	
교제및여가활동시간	남	217.0(134.3)	3.06 *	236.3(151.7)	3.13 **	218.9(125.2)	2.77 **	205.0(136.4)	.08	194.5(119.8)	.13
	여	187.1(115.9)		176.7(101.5)		166.2(101.4)		202.6(132.5)		192.5(116.7)	
교제	남	31.5(43.9)	-2.28 *	33.0(43.7)	.52	36.3(50.1)	-.67	21.5(38.4)	-1.93	26.0(36.0)	-2.74 **
	여	39.2(43.8)		29.5(38.0)		41.5(42.2)		42.9(51.7)		40.6(41.1)	
미디어이용여가	남	116.8(94.4)	3.11 *	132.9(105.9)	2.73 **	111.0(93.2)	2.40 *	100.8(71.5)	-.53	108.9(84.0)	1.20
	여	95.5(80.8)		90.5(74.7)		77.8(64.4)		112.0(98.3)		95.6(76.1)	
종교활동	남	1.5(13.4)	-3.68 ***	2.0(15.6)	-1.37	2.2(16.7)	-1.27	.0(0)	-2.96 *	.5(4.9)	-2.70 **
	여	9.9(37.2)		11.6(52.1)		7.6(30.0)		9.6(28.5)		10.3(37.0)	
문화및관광	남	.3(6.6)	1.41	.0(0)	-1.0	.0(0)	-1.0	.0(0)	-.58	1.2(12.6)	-0.01
	여	1.5(12.6)		1.8(13.2)		1.8(3.5)		1.3(11.4)		1.2(12.7)	
스포츠및레포츠	남	26.5(52.7)	1.92	24.7(49.3)	.33	32.9(60.0)	2.16 *	28.5(64.9)	.84	20.4(43.0)	.13
	여	19.8(40.0)		22.3(35.1)		18.7(30.0)		18.8(44.7)		19.6(42.8)	
의례활동	남	.1(1.1)	.59	.0(0)	-1.0	.0(0)	-	.0(0)	-	.3(2.2)	1.34
	여	0.0(0.6)		.2(1.3)		.0(0)		.0(0)		.0(0)	
기타여가	남	40.3(52.8)	5.82 ***	43.8(55.0)	3.50 *	36.6(45.3)	3.06 **	54.2(71.8)	2.50 *	37.3(53.7)	1.97 *
	여	21.3(32.3)		20.9(33.1)		18.7(32.1)		18.1(30.7)		25.1(33.2)	
N	남	393		128		133		26		106	
	여	294		57		55		77		105	

*p<.05, **p<.01, ***p<.001

〈표 5〉 주말 중년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여가시간사용의 성차에 대한 t검증 결과

구분	성별	전체(n=451)		미혼(n=129)		유배우(n=106)		사별(n=65)		이혼(n=151)	
		평균(SD)	t	평균(SD)	t	평균(SD)	t	평균(SD)	t	평균(SD)	t
총 여가시간	남	306.7(178.8)	3.00 **	341.5(198.5)	2.04 *	279.9(156.8)	.94	213.6(134.4)	-.84	317.5(175.8)	1.96 *
	여	259.0(155.0)		270.0(175.2)		252.1(128.4)		247.0(153.4)		263.4(158.4)	
참여 및 봉사시간	남	4.2(34.9)	.65	11.0(60.0)	.30	.3(2.4)	.76	0.0(0.0)	-1.42	1.5(10.2)	.84
	여	2.4(18.4)		8.0(37.0)		0.0(0.0)		1.6(7.5)		.4(3.7)	
참여활동	남	.4(4.7)	1.31	0.0(0.0)	-	0.0(0.0)	-	0.0(0.0)	-	1.2(8.3)	1.32
	여	0.0(0.0)		0.0(0.0)		0.0(0.0)		0.0(0.0)		0.0(0.0)	
자원봉사	남	0.0(0.0)	-1.00	0.0(0.0)	-	0.0(0.0)	-	0.0(0.0)	-.71	0.0(0.0)	-
	여	.2(2.9)		0.0(0.0)		0.0(0.0)		.9(6.1)		0.0(0.0)	
친분있는사람돕기	남	3.8(34.5)	.591	11.0(60.0)	.30	.3(2.4)	.76	0.0(0.0)	-.71	.4(2.4)	-.18
	여	2.2(18.2)		8.0(37.0)		0.0(0.0)		.7(4.6)		.4(3.7)	
교제및여가활동시간	남	302.5(177.2)	2.89 **	331.0(196.8)	1.99 *	279.6(157.0)	.93	213.6(134.4)	-.82	316.0(174.6)	1.92 *
	여	256.6(153.1)		261.8(167.6)		252.1(128.4)		245.3(154.0)		263.0(158.4)	
교제	남	41.2(50.5)	-2.48 *	38.1(58.8)	-.92	40.7(46.5)	-.94	37.7(38.2)	-1.29	45.7(47.7)	-1.57
	여	54.3(59.0)		48.4(64.3)		49.5(45.7)		55.6(58.9)		60.3(62.9)	
미디어이용여가	남	160.7(131.7)	2.11 *	204.6(164.1)	2.16 *	135.5(104.6)	.67	107.7(77.9)	-1.15	150.7(114.0)	.73
	여	135.7(114.8)		143.6(130.2)		121.8(95.9)		138.4(111.5)		136.9(117.6)	
종교활동	남	8.7(40.3)	-1.58	6.2(40.0)	-1.29	14.8(46.5)	-1.42	0.0(0.0)	-1.36	8.7(40.5)	.64
	여	16.2(56.0)		17.8(52.9)		32.6(82.4)		17.2(59.1)		4.9(29.9)	
문화및관광	남	5.6(28.0)	-.06	3.1(18.5)	-1.06	8.2(35.6)	1.28	8.2(28.1)	1.37	5.4(29.1)	-.76
	여	5.8(31.7)		8.0(27.8)		2.1(12.8)		0.0(0.0)		10.1(47.8)	
스포츠및레포츠	남	45.8(84.7)	3.26 ***	33.8(76.8)	1.37	45.8(79.3)	1.23	18.2(36.1)	-.05	64.9(100.9)	2.45 *
	여	25.1(48.8)		17.3(34.3)		27.7(61.8)		18.6(31.7)		33.0(56.5)	
의례활동	남	1.5(13.5)	.95	1.2(6.5)	.28	.4(3.7)	-.83	0.0(0.0)	-	3.0(22.4)	1.22
	여	.5(4.7)		.9(4.2)		1.5(9.6)		0.0(0.0)		0.(0.0)	
기타여가	남	39.0(61.3)	4.54 ***	43.6(66.4)	1.89	34.0(48.1)	2.47 *	41.8(76.9)	1.6	37.6(61.8)	2.61 **
	여	19.0(30.5)		25.8(40.3)		17.0(23.1)		15.6(26.6)		17.8(29.1)	
N	남	257		84		67		22		84	
	여	194		45		39		43		67	

*p<.05, **p<.01, ***p<.001

4. 종년1인가구의 여가시간 결정요인

종년1인가구의 여가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종속변수를 ‘참여및봉사시간’과 ‘교제및여가시간’으로 선정하고 각각 평일

<표 6> 종년1인가구의 참여및봉사시간과 교제및여가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평일				주말			
	참여및봉사시간		교제및여가시간		참여및봉사시간		교제및여가시간	
	B	S.E	B	S.E	B	S.E	B	S.E
인구사회학적 변수								
여성	-16.95	8.52	-40.97	10.93 ***	- .34	3.27	-68.86	18.61 ***
연령	.19	.15	1.83	1.01 *	.14	.30	1.95	1.73
혼인상태(기준: 미혼)								
유배우	- .24	2.05	-25.77	13.53 *	-14.78	4.27 **	-34.94	24.36
사별	1.48	1.94	-32.99	12.81 *	- 9.42	3.90 *	- 5.59	22.23
이혼	1.21	2.54	-15.98	16.74	-10.18	5.28 *	-48.33	30.07
교육수준(기준: 전문대졸이상)								
중졸이하	2.06	2.40	12.36	15.82	.04	4.90	- 7.58	27.89
고졸	- .45	1.83	9.56	12.06	-3.21	3.86	-19.34	21.97
건강수준	2.30	.95 *	9.93	6.26	-2.87	1.78	4.63	10.13
수도권거주	.18	1.58	-9.75	10.41	-6.72	3.06 *	12.27	17.42
취업변수								
취업형태(기준: 자영업)								
시간제임금근로	-3.83	2.68	40.39	17.66 *	-7.54	5.44	83.44	30.97 **
전일제임금근로	-3.32	1.76 *	-60.39	11.60 ***	-7.53	3.31 *	2.40	18.88
직업유형(기준: 관리전문직)								
사무서비스직	2.27	2.25	- 5.79	14.80	.82	4.77	-21.69	27.20
기술직	3.30	2.58	-15.11	16.98	.14	5.52	-53.29	31.43 *
단순노무직	1.52	2.73	3.98	17.96	.25	5.79	-40.99	33.00
정기휴무제(기준: 주5일제 휴무)								
주1일+격주토요일휴무	2.72	3.16	-30.83	20.82	-8.93	6.48	-31.09	36.94
주1일휴무	1.29	1.96	-19.76	12.90	-7.08	3.94	-68.01	22.42 **
2주1일휴무	- .22	3.97	-36.48	26.16	-11.35	6.86	-95.82	39.09 *
기타휴무	2.84	2.04	4.91	13.43	-7.42	4.12	-75.98	23.46 **
소득수준(기준: 3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1.78	2.43	3.92	16.07	-7.98	4.68	40.76	26.68
150~300만원	-2.99	2.05	-20.94	13.47	-9.05	4.06 *	48.53	26.68 *
상수	-16.95	12.52	64.73	56.07	35.34	20.30	64.00	92.86
F값	1.79 *		6.37 ***		1.99 *		3.01 ***	
R ²	.10		.16		.11		.12	
N	687				451			

*p<.05, **p<.01, ***p<.001

과 주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회귀분석의 F검정 결과 모두 유의하였으며, R²는 참여및봉사시간 모델의 경우 평일과 주말에 .10과 .11로 약간 낮은 편이었으며, 교제및여가시간 모델의 경우 평일 .16, 주말 .12로 나타났다.

우선 평일의 경우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참여및봉사시간에 영향을 준 변수는 건강수준과 취업형태였으며, 교제및여가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취업형태로 나타났다. 참여및봉사시간은 건강수준이 1점 높을수록 2.3분 증가하였으며, 전일제 임금근로자는 자영업에 비해 약 3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교제및여가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41분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집단에 비해 유배우 및 사별집단의 경우 각각 약 26분, 약 33분을 덜 사용하였다. 또한 자영업자에 비해 시간제 임금근로자는 교제및여가시간에 약 40분을 더 사용하였고, 전일제 임금근로자는 60분을 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주말의 경우는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참여및봉사시간에는 혼인상태, 수도권거주, 소득수준 변수가, 교제및여가시간에는 성별, 취업형태, 직업유형, 정기휴무제, 소득수준 변수가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1인가구의 주말 참여및봉사시간의 사용에서는 미혼집단에 비해 유배우, 사별, 이혼집단은 각각 약 15분, 9분, 10분을 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혼인상태별 시간사용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에 비해 전일제임금근로자는 참여및봉사시간으로 약 8분을 덜 사용하였다. 소득수준이 월평균 300만원이상인 집단에 비해 150~300만원미만인 집단의 참여및봉사시간은 약 9분 정도가 유의하게 짧았다. 교제및여가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1시간 9분 유의하게 짧았으며, 자영업자에 비해 시간제임금근로자는 약 1시간 23분 더 길게 나타났다. 또한, 주5일근무 정기휴무제를 갖는 집단에 비해 주1일휴무, 격주1일휴무,

기타휴무제에 속하는 경우 교제및여가시간이 각각 약 1시간 8분, 약 1시간 35분, 약 1시간 15분이나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서 월평균 개인소득이 300만원이상인 집단에 비해 150~300만원미만인 집단의 교제및여가시간은 약 49분 정도가 유의하게 길었다.

V. 논의 및 제언

최근 1인가구의 증가는 한국사회 가족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기나 노년기의 1인가구에 비해 중년1인가구에 대한 이론적이며 정책적인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을 고려할 때, 향후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중년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2014 생활시간조사자료(2015)’를 사용하여, 40-59세 연령대의 취업상태에 있는 1인가구(n=1,138)를 연구대상으로 여가시간의 사용구조를 고찰하고 혼인상태별, 성별 집단차이 검정 및 여가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1인가구의 여가시간사용구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총 여가시간은 238분이었다. 이 가운데 참여및봉사시간은 평일 2분, 주말 3분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었고, 교제및여가활동시간(평일 204분, 주말 283분)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때, 교제및여가활동의 하위활동별 시간사용량은 미디어이용여가>교제활동>기타여가>스포츠 및레포츠>종교활동>문화및관광활동>의레활동의 순으로 많았다. 하위활동영역 중 가장 긴 시간은 실시간방송(TV)보기에 사용되었으며 약 1시간 35분 수준(평일 1시간29분, 주말 2시간30분)이었다. 대부분의 여가시간은 평일보다 주말에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타여가만 평일에 약간 긴 수준이

었다. 평일과 주말의 하위활동영역별 시간량 순서는 평일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1인가구의 평일과 주말 여가시간 하위영역별 시간사용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 총 여가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은 교제, 미디어이용, 종교, 기타영역에서, 주말은 교제, 미디어이용, 스포츠및레포츠, 기타여가 영역에서 성차가 유의하였다. 단, 교제와 종교활동 영역에서만 여성의 사용시간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성차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평일의 경우, 교제는 이혼집단에서만, 스포츠및레포츠는 유배우집단에서만 성차가 유의하였다. 주말의 경우, 미디어이용여가는 미혼집단에서만, 스포츠및레포츠는 이혼집단에서만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셋째, 중년1인가구의 평일과 주말 참여및봉사시간과 교제및여가활동시간의 결정요인을 각각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평일의 참여및봉사시간에는 건강수준과 취업형태 변수가, 교제및여가활동시간에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취업형태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말의 참여및봉사시간에는 혼인상태, 거주지역, 취업형태, 소득수준 변수가, 교제및여가활동시간에는 성별, 취업형태, 직업유형, 정기휴무제, 소득수준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가시간에 대한 성별이나 혼인상태, 취업으로 인한 영향의 독립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중년1인가구는 대부분이 미혼상태인 청년1인가구와 달리 혼인상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혼인상태에 따라 분류한 집단별로 남녀간의 성차를 비교하였다. 이에 따라 드러난 뚜렷한 성차는 중년세대이면서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같은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동질성을 넘어

서는 성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중년1인가구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총 여가시간이 유의하게 짧았다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나, 이러한 경향이 유배우집단에서는 물론 미혼집단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 생활시간의 영역에서 개인필수시간이나 의무생활시간과는 구분되는 시간으로 자유롭고 선택적으로 보내는 여가가 지니는 내적 의미를 고려할 때, 1인가구에서도 드러나는 성차의 함의는 적지 않다 하겠다. 또한 중년1인가구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제와 종교활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혼인상태별로 볼 때, 중년1인가구 남성의 경우 미혼집단과 유배우집단에서 모두 여성에 비해 미디어이용여가에 유의하게 더 긴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 결과는 중년1인가구 남성의 여가시간 사용량 자체는 여성보다 높지만, 여가의 질적 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양적으로 더 긴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과 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여가시간을 향유하는 것의 의미는 개별적인 취향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보다 적극적인 여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여 홀로 주거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중년세대를 위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혼인상태와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시간사용의 측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여가활동영역의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세부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를 이루는 두 영역 중 참여및봉사시간의 경우 측정치가 매우 적어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하루 단위의 시간조사 이외에 연단위 또는 월단위의 시간사용량 및 횟수 등에 대한 질문문항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참여및봉사활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수준을 드러내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타당하고 정확한 측정은 다양한 시간자원과 관련된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의

사회자본 연구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참여나 봉사활동의 하위활동영역을 선정하고 분류하는 방식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히 ‘친분있는사람돕기’의 영역은 활동의 특성상 가사노동의 영역과 상당한 수준으로 중복되어 해석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기계발이나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가사노동의 경우 여가시간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참여및봉사시간’의 개념을 보다 가족이나 이웃을 넘어 보다 확장된 사회적 관계로 한정하는 것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기타여가 항목의 특성상 전통적 분류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여가활동영역에 별도로 분류된 활동, 즉 종교활동, 문화및관광활동, 의례활동 등의 영역에 비해 훨씬 긴 시간사용량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기타여가’의 영역에 포함된 시간을 하나의 항목으로만 분류하는 것은 세분화된 여가사용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한 게임산업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그에 따른 사용시간의 증가가 여가생활에서 별도로 주목해야 할 독립적인 활동영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년1인가구의 성별, 혼인상태별 여가사용시간의 차이를 볼 때, 향후 다양한 여가정책과 여가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년세대 취업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음에도 이들이 모두 홀로 세대를 구성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성별이나 혼인상태에 따른 시간사용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여가프로그램의 설계에서는 홀로 주거를 형성한 상태라 하더라도 당연히 미혼일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맺고 있는 가족관계, 사회관계망 등에 의해서도 여가활동의 양상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시행에 앞서 1인가구의 이질성을 반영하는 세심한 정책기획이 요구된다.

최근 1인가구를 가족정책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전체 가구에서 더 이상 소수집단이 아니며, 이들의 여가생활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자신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원이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 그들과 여가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인가구는 가족지원정책의 주요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분석을 통하여 1인가구의 여가시간사용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들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은퇴 이후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함의를 얻을 필요성이 있다. 이는 소비지출과의 관련성 등 재무관리적 측면뿐 아니라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후 장기 생활설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은나·이민홍(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4, 47-56.
- 2) 강은택·강정구·마강래(2016). 1인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대한 연구: 미혼 1인가구와 기혼 1인가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1), 2-23.
- 3) 김기향(2013). 중고령자의 사회경제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김도희(2012). 청년 1인가구 증가요인에 따른 생활실태분석과 정부의 정책과제. 2012 한국 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자료집.
- 5) 김시월 · 조향숙(2015).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 패턴과 삶의 만족도. *Financial Planning Review*, 7(3), 89-116.
- 6) 김혜영(2008).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한국사회*, 9(20), 55-94.
- 7) 김혜영(2014). 유통하는 한국가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5(2), 255-292.
- 8) 김혜영 · 선보영 · 진미정 · 사공은희(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 9) 김혜정(2015).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5(2), 7-40.
- 10) 나지나 · 백승애 · 신은경 · 김미혜(2010). 결혼 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1) 박윤희(2010). 중고령자의 고용 및 직업능력 개발 요구분석. *HRD연구*, 12(3), 83-111.
- 12) 박지혜 · 이순학 · 한승희(2015). 1인 가구의 문화소비지출행태 분석. 산업연구원.
- 13) 반정호(2012).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월간 노동리뷰*, 2012(4), 55-67.
- 14) 변미리(2008). 서울의 1인가구 현황과 도시정책 수요.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자료집.
- 15) 손승영(2005).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노동 경험과 딜레마: 강한 직업정체성과 남성중심적 조직문화. *한국여성학*, 21(3), 67-97.
- 16) 여윤경(2003).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인가계의 소비패턴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12.
- 17) 여윤경 · 양세정(2001).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 지출패턴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12(4), 65-81.
- 18) 우민희 · 이명진 · 최셋별(2015). 청년세대 일인가구의 여가활동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 다인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6(1), 201-231.
- 19) 유병규 · 조호정 · 전선형(2010). 국내 1인가구의 7개 구조적 특징: 1인 가구의 저소득 · 고령화 심화. *경제주평*, 10(4), 1-14.
- 20) 윤소영(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혼 및 기혼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09-217.
- 21) 이성림 · 김기옥(2009). 우리나라 독신가구의 여가활동 소비지출패턴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1(2), 85-101.
- 22) 이희연 · 노승철 · 최은영(2011). 1인가구의 인구 · 경제 ·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46(4), 480-500.
- 23) 전상민(2013). 단독가구의 소비지출패턴 유형 및 결정요인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44(3), 21-43.
- 24) 성영애(2013).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1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연구*, 24(3), 157-222.
- 25) 이진숙 · 이윤석(2014). 비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여성과 남성의 교제활동 시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1-24.
- 26) 조성철(2012). 수도권 1인가구 주택수요 전망과 주택공급 분석.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차경옥(2006). 남성 1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 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53-269.
- 28) 최경은 · 윤주(2013).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9) 최셋별(2014). 1인가구의 문화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다인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2(2), 1-24.
- 30) 최홍철 · 최현자(2014).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와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Financial*

- Planning Review, 7(3), 93-125.
- 31) 홍성철(2015). 1인 가구의 증가와 미디어 소비 행태 분석. 정보사회와 미디어, 16(3), 59- 84.
- 32)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 33) 통계청(2016). <http://kostat.go.kr>.
- 34) 통계청(각년도). 장래가구추계 2010-2035.
- 35) Ben-Zur, H.(2012). Loneliness, optimism and well-being among married, divorced, and widowed individuals. The Journal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146(1-2), 23-26.
- 36) Hall R. Ogden, P. & Hill, C.(1997). The pattern and structure of one person households in England Wales and French.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3(2), 161- 181.
- 37) Kaufman, J.(1994). One person households in Europe. Population, 49(4-5), 935-938.
- 38) Lee, Y. & Han, J.(2013). The ri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Kiet Industrial Economic Review, 18(4), 16-28.
- 39) Wall, R.(1989). Leaving homes and living alone: an historical perspective. Population Studies, 43(3), 369-389.
- 40) White, J. & Lahmann, H.(1988).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one-person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 Germany.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3(1), 31-42.

- 투 고 일 : 2017년 5월 31일
- 심 사 일 : 2017년 7월 4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8월 1일